

# 시대적 변화와 늘 함께해온 민속학 연구

## 아직도 씩어지지 않은 초기작과 최근작

임재해

안동대 교수 · 민속학

나는 지금껏 30여권의 책을 냈다. 잘라 말하면 34권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책을 펴내면서도 아직 처음 쓰려고 했던 책을 펴내지 못해 스스로도 회한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쓰지 않은 그 책 이름은 《정만서 전설, 그 풍자와 웃음》이다. 초기작 《꼭두각시놀음의 이해》를 제쳐두고 아직 간행되지 않은 상상 속의 책에 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은 이 책이 사실상 가장 초기작이었을 뻔했기 때문이 아니며, 언젠가 이 책이 최근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쓰지 못한 책을 말함으로써, 이 책을 반드시 내겠다는 약속을 자신에게 거듭 다짐하기 위해서다.

### 민중의 전통문화가 지닌 건강성에 주목

1970년대 중반부터 홍성신서로 출판계에 주목을 받던 홍성사에서 '뿌리를 캐는 글들'을 새로 기획하면서 《정만서 전설》의 집필의뢰를 해왔다. 책을 쓰기 위하여 3년 전에 조동일 교수와 현지조사를 했던 현곡면 가정리를 다시 찾아 재조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고향인 조전동 대추밭골과 묘지까지 찾는 등 열성적으로 자료를 모았다. 그러나 자료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원고의 틀이 잡히지 않았다. 마침내 협의 끝에 책의 내용을 '꼭두각시놀음'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따라 제목을 《꼭두각시놀음의 구조적 이해》로 붙였지만 출판과정에서 '구조적'이라는 말은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첫 저작은 당초 계획과 달리 《꼭두각시놀음의 이해》(1981, 흥성사)가 되고 말았다.

1970년대 후기는 구조주의의 시대라고 할 만큼 구조주의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다. 동시에 이 때는 탈춤의 시대라 일컬어도 좋을 정도로 민속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나의 첫 저작은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민속극 연구자로서보다 민속학자로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자연히 민속학 일반에 관한 원고 청탁이 쇄도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묶여 두번째 저작인 《민속문화론》(1986, 문학과지성사)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책은 1980년대 전반기의 우리 학계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군부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학계에서는 사회구성체를 비롯해 계급과 민중, 변혁,

공동체 등의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착안한 출판사는 '문제와 시각' 시리즈를 기획했고 《민속문화론》은 그 15번째이다. 서구문화의 위력에 휘둘리고 있는 동시대 문화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족문화의 수립을 위한 대안으로 민속문화를 내세우며 문명비판론적 시각에서 민중의 전통문화가 지닌 건강성을 조명했다.

《민속문화론》 다음에도 문학과지성사에서 《한국의 민속예술》(1988)을 편저로 간행했고 또 이들 책은 각기 4쇄 이상을 찍었다. 하지만 아직 출판사에 가본 적이 없고, 대표인 김병익 선생을 만난 적도 없다. 출판 결정에서부터 원고를 건네주고 교정 작업을 하기까지 모두 우편과 전화를 이용하였다. 한마디로 원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미더운 출판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저작은 다른 출판사에서 낼 수밖에 없었다. 박사학위논문인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1991)은 문학과지성사의 경향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학관련 전문출판사이면서도 현실적 감각을 지닌 출판사로 내심 지목하고 있던

지식산업사에서 내게 되었다.

이 책은 본격적인 연구서인 까닭에 어느 출판사든 별로 환영하지 않으리라 짐작하고, 《민속문화론》을 낼 때와 같은 수법으로, 지식산업사에 원고를 보내면서 출판의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회신용 관계엽서를 동봉했다. 뜻밖에 김경희 사장으로 부터 '바라던 바이나 감히 청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문장의 출판 승락과 함께 그 동안의 연구목록을 봤으면 좋겠다는 회신이 왔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외에 민속학총서를 새로 기획하여 민속과 설화에 관한 단행본을 각각 2권씩 모두 4권을 더 내기로 하면서, 앞으로 모든 출판은 지식산업사와 상의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작인 《안동문화의 수수께끼》(1997)까지 모두 7권을 냈다.

### 생명모순의 대안 실천까지 모색

《꼭두각시놀음의 이해》 이후 관심 분야를 설화 쪽으로 옮기고 방법론의 개척에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민속극은 민중적 비판의식이 뚜렷하긴 하지만 민중이 널리 공유하는 민속문화는 아니었다. 특히 꼭두각시놀음은 남사당패와 같은 특수한 전문광대들이 전승하는 문화였다. 따라서 민중은 물론 사람들이면 누구나 향유하는 가장 민주적 문화인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작품의 구조적 분석에서 벗어나 설화가 현장에서 이야기되고 전승되는 생생한 실상을 현장상황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현장론적 방법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내게 70년대가 구조주의 시대이자 민속극의 시대라면 80년대는 현장론의 시대이자 이야기의 시대이다. 나의 학위논문과 저서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늘 함께한 셈이다.

내 책의 다른 한 가닥은 민속학 일반에 관한 것이었다. 《민속문화론》 이후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1991, 지식산업사),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1994, 지식산업사), 《한국민속학과 현실인식》(1997, 집문당)이 그 보기다. 이 가닥은 자연친화적 생명문화의 성격을 지닌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이치와 공생적



내게 70년대가 구조주의  
시대이자 민속학의 시대라면,  
80년대는 현장론의 시대이자  
이야기의 시대다. 또  
90년대는 곧 생태학의 시대이자  
현실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의 시대로 떠올랐다.  
나의 저서들은 이런 시대적  
변화와 늘 함께한 셈이다.

세계관을 분석하는 《제3의 민속학》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민속학자로서 민속문화의  
이치를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해결을 위한  
대안문화로 주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생명모순에서 비롯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문화로서 민속학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내게 90년대는 곧 생태학의  
시대이자 현실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의 시대로 떠오른 것이다.

구체적 전공 분야로서 설화연구의 가닥은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이후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1992,  
지식산업사),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1995, 천재교육)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이 책의 자매편으로 예고한 《민족설화의  
묘미와 현실》, 《민족신화와 문화영웅들》은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신화를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에 걸쳐서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는 작업과,  
우리 설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두 방향의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각각 절반씩만 정리한  
셈이다.

가장 최근작으로는 최인학 교수 외  
몇분과 공동연구로 저술한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1998, 민속원)를  
들 수 있다. 민속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적한 5년 동안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최근작은  
편저임에도 불구하고 《안동문화의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연구는 사실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 안동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안동문화의 주체인  
안동시민들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지역주민과 함께 가지 않는 지역문화연구는  
삶과 얹어 걸도는 연구라는 반성 아래,  
안동문화의 도드라진 문제들을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시민강좌를 2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좌 내용 중 일부를  
엮은 것이 이 책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연구와 쉬운 글쓰기 덕분에 독자의  
반응이 대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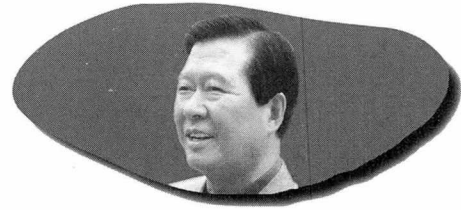
#### 삶이 담긴 쉬운 글쓰기 모색

독자들의 반응과 상관 없이 학자는 자기  
학문의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발언할  
수밖에 없다. 안동대학에 국학부가 꾸려짐에  
따라, 이 시대에 우리 국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국학의 방향을 인간화 국학, 통일국학,  
세계화 국학, 자연친화 국학으로 설정하고  
학계의 역량을 집결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1997, 집문당),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국학》(1998, 집문당)으로 간행하였다.  
이 계획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의 문제의식은 민중과  
민족 문제를 감싸안으면서 생명모순을  
해결하는 쪽으로 변모해 왔고, 외국의 기존  
이론을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해석 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자연히  
쉬운 글쓰기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전공을 뛰어넘어 작게는 지역문화에, 크게는  
국학 또는 인문학 일반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여러 동학들과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일거리들을 벌여놓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근작은 아직 없다.  
최근작은 나의 구상 속에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원고 속에 있다. 올해 간행한 몇 권의  
책은 이미 최근작이라고 하기에 낡은 원고가  
되어버렸다. 지금 쓰고 있는 《티베트문화의  
놀라움》, 《우리 곁의 자랑스러움》,  
《제3의 민속학》 등이 최근작이라고 할까.  
그리고 보면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모두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마땅하다. ❖

이가책

# 김대중과 이지메



최홍순 · 이상진 / 함께 엮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용공 이지메는 아직도 멈출 줄 모른다.  
김대중을 이지메하여 입지상승을  
노리는 세력들은 왜그토록 끈질기게 그를  
용공유령으로 희롱하는가?  
그것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인가,  
이성을 잃은 습관인가?  
대통령이 용공주의자라면 국민은 뭐란 말인가?  
35편의 용공음 해조작극을 추적,  
그 허상을 날날이 공 개한 정치환경 개혁서!

현재 제2단으로 지역감정 이지메와 비자금 이지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전화) 02) 322-3532~3, (팩스) 322-3534

## 이가책 과 혼손 한글서체는 형제회사입니다

이 광고 기획 카피는 42분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4일 동안 만든 광고를 선보이겠습니다.



지게와 바소쿠리는 우리의 소중한  
농구입니다

이가책 기획실 02-322-3533

02-336-1743 혼손 한글서체

출판의 기획 · 집필 · 편집을  
성심껏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라디오 도서광고 · 카피 제작도  
매우 저렴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